

Olivier Germain-Thomas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방송제작자. 1968년 인도 미학을 주제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1971년에는 <샤를르 드골 연구소 Institut Charles de Gaulle>(소장: 앙드레 말로)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소르본느 라디오 프랑스>의 이사로서 라디오 방송 <Agora>와 텔레비전 방송 <Océaniques>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소설 작품으로는 *Soleil de cendre*(1979), *L'Amour est assez grand seigneur*(1985), *Princesse non identifiée*(1990) 등이 있고, 그밖의 저서로는 *Les Rats capitaines*(1978), *De Gaulle et l'histoire de France*(1990) 등이 있다.

드골과 말로

올리비에 제르맹-또마

저를 이렇게 훌륭히 소개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한국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것이 저의 생애 중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4년전 여러분의 나라를 접할 기회를 가졌었기에 더욱 더 그러합니다. 저는 《라디오-프랑스》의 한 채널인 <프랑스-문화>의 특파원으로 왔었습니다. 저는 과거 우리의 라디오 문화 프로그램에서 결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름이 한모(某)씨인,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한국 여류시인 통영과 함께 한달 동안 한국에 머무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체류에 이어 4년전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특집방송을 녹음했고 한국에 대한 문화 채널을 통해 15시간 동안 방송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문화>의 청취자들은 여러분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것이 대단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인물이며 정치가인 국가원수 샤를 드골과 작가 앙드레 말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상 아주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이전에는 정치적 책임자로서 위대한 작가의 친구까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프랑스 왕 루이 14세와 몰리에르 사이의 관계를 예로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며 매우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볼테르와 디드로가 까뜨린 2세와 맺었던 관계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들에서 진정한 상호 영향이나 특히 우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샤를 드골과 앙드레 말로 사이에는 25년 동안 정치적인 동시에 문학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여러 번 드골장군의 각료가 되었으며 드골은 말로를 만나기 전 그의 독자였으며 말로는 나중 드골의 독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대화가 또한 문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마 가장 중요하며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세번 째 관계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밝히고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조금 후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하겠지만 1965년 드골장군이 앙드레 말로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하도 은밀히 이루어져서 말로는 정말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들 관계의 강렬함과 깊이입니다. 이러한 역량과 높은 식견을 가진 두 사람이 강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고차원의 장소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공통의 이해 관계나 공통의 싸움거리가 있다하더라도 이해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내부 더 깊숙히, 처음에는 달랐지만, 역사와 인간에 대한 그리고 그 이상에까지 동일한 개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보려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를 드골이 가톨릭 신자이고 앙드레 말로가 불가지론자이었던라도 일종의 동일한 형이상학적 개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쓰러지는 떡갈나무』라는 말로가 드골과의 관계에 대해 쓴 책을 통하여 그들의 대화 역시 형이상학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의 모험의 시기를 잡기 위해 몇몇 역사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90년 생인 드골과 1901년 생인 말로 사이에는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 배경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가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드골은 우파의 관례적 구분에 따르면 지방의 가톨릭 전통주의자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부친은 왕당파인 동시에 그 무시무시한 드레퓀스 사건이 전 프랑스를 두 편으로 갈라놓았을 때 드레퓀스파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부친은 전통주의자인 동시에 사회 현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자녀, 부모에 대한 복종이 매우 중요한 이른바 유교적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계들은 지난 세기 말 프랑스 지방에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말로의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가계가 소부르주아인 반면 드골은 오히려 대부르주아 계다가 몇몇 조상이 귀족인 가계 출신입니다. 말로는 훨씬 더 평범한 사회적 지위의 가계 출신입니다. 그는 불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출했고 그에게는 의붓 형제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족의 다른 성원들과만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사촌들과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 성장했으며 그의 첫 번째 사회적 입지는 그가 초현실주의 영향하에 '종이로 만든 달'이라는 한 짧은 구절을 발표한 후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곧 혁명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인도차이나에 갔을 때 그는 매우 젊은 20대였습니다. 그는 호기심때문에 아시아 문화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도차이나에 있었던 프랑스 식민주의 체제를 부수기 위한 정치적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36년

에 그에게는 포화 앞에서 싸운 첫 번째 큰 경험이었던 스페인 내전에 참가한 것 역시 혁명적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6년부터 국가주의적 의식이 혁명 세계주의라는 의식에 침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그 속에서 그가 역사, 스페인 땅이 이 데올로기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페인에 있었으며 당분간 프랑스에 대한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동안 드골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드골 그는 더 철신 젊어서 전쟁을 알았습니다. 그가 24살일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는 참호 속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웠으나, 유감스럽게도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계속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과 24세의 나이로 독일 점령에 대하여 전투에 전적으로 참가한 것이 처음부터 그를 국제적 현실에 열린 정신의 소유자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출간되었던 편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적 현실이었습니다. 70년의 패배이후 14년전까지 우리가 해야했던 것은 복수였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자주 열정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1918년의 진부한 승리 후에도 드골은 복수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가 외국에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커다란 강박관념은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 프랑스 군대를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서 한편으로는 국제혁명가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열린 마음의 교양있는 전통주의자 프랑스 장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된 배타적 관심은 군사적이며 국가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35, 36, 37년도부터 드골과 말로가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그들이 독일을 지배하고 있던 나치즘이라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각각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연결 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로가 스페인에 간 것은 스페인 내전이 독일과 이태리에서 준비되고 있던 전체주의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첫 번째 국지전이라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국제주의의 이름하에 - 드골 역시 동일한 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몇몇 군사 전략서를 발간했는데 그것은 나치즘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때부터, 그들은 서로 몰랐지만, 그들 사이에 설정된 일종의 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드골대령은 전쟁 중 잠정적으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적들은

흔히 그가 임시 장군이라고 비난합니다. 말로는 그 당시 40세이었는데 39세때 의용군이 되었고 몇 주만에 우리가 패배해버린 1940년의 프랑스 첫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남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드골도 장군으로 북프랑스에서 싸웠으며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후 그의 군대는 후퇴해야 했고 그는 곧 차관으로 정부에 입각합니다. 그는 영국으로 날아가서 1940년 6월 18일부터 레지스탕스에게 저항 호소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회에 의해 위임받은 뻬탱 원수의 공식정부는 실상 항복의 형태인 휴전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1940년 이상한 반전에 의해 반역자가 된 사람은 드골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프랑스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했고 반면 프랑스정부는 프랑스를 침략한 독일군의 명령 앞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드골은 반역자가 되었으며 말로는 40년, 홀름히 싸운 뒤 전투에서 은퇴했습니다. 말로 전문가들은 결코 참여에 주저해 본 적이 없으며 그렇게 전체 주의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저항했던 사람이 왜 프랑스가 침략받을 때 드골장군과 합류하지 않았는 가를 여러 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말로는 그가 드골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그 편지가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증인들은 편지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986년 샤를 드골 연구소에서 드골-말로라는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편지가 한 영국여인에게 맡겨졌으나 그 여인은 체포되고, 적의 수중에 그 편지가 넘어갈 것을 우려한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골에게 보낸 그 편지를 먹어 치우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일화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말로를 드골에 연결짓는 이 불확실한 편지를 찾아서 항상 연구를 시작하는 말로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에 충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골은 런던에서 반역자가 되었으며, 말로는 프랑스의 남부지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전협정에 따르면 프랑스의 북서부 전 지역은 독일에 점령되어 있었으며 소위 '자유지역'이라 하는 남부지역도 실상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점령지역이라 해둡시다. 말로는 이 지역으로 가서 정치적 문제보다 역사적 형이상학적 예술적 문제에 더 몰두합니다. 41, 42년에 좌파 파견원들이 그를 보러 와서 레지스탕스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거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합니다. 혹자는 그가 작품의 추구에 너무 몰두하고 있어서 그때 레지스탕스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혹자는, 저는 이것

을 믿고싶은데,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종의 역사적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명석했던 그가 레지스탕스 전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패배한지 3년 후인 1943년 말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프랑스 중심에 있는 도인 꼬레즈에 도착합니다. 그 곳에는 1942년 11월 이후 미군의 북아프리카 상륙에 이은 독일군의 프랑스 전영토 점령에 대항하여 싸우던 레지스탕스 조직, 다시 말해 무장한 저항군 집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로는 레지스탕스의 전사가 되어 아주 특이하게 분열되어 있던 꼬레즈의 모든 조직을 결속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공산주의자와 드골주의자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사들의 실질적 집단인 한 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알사스-로렌 여단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알사스-로렌 여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무장과 전투경험이 없는 의용군들을 이끌고 그는 스트라스부르로 올라갑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해서 이 도시를 해방시키는 라프장군의 부대에 합류합니다. 곧 이어 스트라스부르를 다시 점령하려는 새로운 공격이 있게 됩니다. 라프는 말로에게 말로의 여단과 그가 가지고 있던 얼마 간의 병력을 주며 독일군의 침공시 스트라스부르를 사수하라는 임무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모았고 그들은 이것이 희생양적 임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로의 카리스마에 의해 설득당해 이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독일군의 역공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워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단은 완전히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전투사령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스트라스부르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940년부터 1943년까지의 오랜 기다림과 주저, 반대로 1943년부터의 격렬하며 군사적이며 효과적인 참여 사이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944년 미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으며 드골장군은 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대환영을 받으며 과도정부의 수반이 됩니다.

드골은 항상 작가들에 끌렸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베르나노스를 많이 읽었으며 그가 알제리에서 자유 프랑스를 수립하였을때 그가 행했던 첫 조치 중의 하나가 튀니지에 있던 앙드레 지드에게 그를 만나러 와줄 것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드와 대화하기를 바랬습니다. 전쟁 중에 그는 브라질에 있는 베르나노스에게 자유 프랑스에 참여해 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해방된 파리에서 행한 첫번째 조치 중의 하나가 프랑스와 모리악에게 그를 보러 와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를 만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혁명전사로서의 말로의 이미지가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방된 파리에서 그는 유감스럽게도 말로보다 뻔뻔원수에 협력한 모리악이나 끌로델같은 이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말로와 드골이 만난것은 더 후인 1945년 8월에 가서야 입니다. 그 상황은 흥미롭습니다. 두사람이 만나기 몇 달 아니 몇 주 전에 레지스탕스 대회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내에서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 공산당의 레지스탕스운동 전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세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홀의 단상에서 홀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결국 홀을 드골주의자로 만들었으며 레지스탕스운동의 드골에 대한 지지를 획득케한 사람이 바로 말로입니다. 레지스탕스운동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다른 조치가 있었으나 어쨌든 이 운동에서 공산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것을 말로가 막은 것입니다. 드골이 이 사실을 알았고 말로를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곧 만남은 이루어졌으나 첫 대화의 증인은 없습니다. 말로는 반회고록에서 이 만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드골장군이 저에게 사적으로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결코 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곧, 우정이라 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어쨌든 그 때 두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상호 존경의 관계가 싹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후 드골은 말로에게 그의 각료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로는 그의 각료가 됩니다. 말로는 그의 각료로 단지 몇 개월 동안만 머뭅니다. 왜냐하면 1946년 1월 드골은 당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임하며 말로 역시 즉시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드골을 따르기 위해 정치에 뛰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1947년 드골은 일종의 정당인 정치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는 정당이란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1947년 봄에 창설된 이 단체를 R.P.F. 즉, 프랑스 국민연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즉시 말로에게 이 연합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보도 선전의 전분야가 그에게 맡겨집니다. 1947, 1948, 1949년의 첫 몇해 동안 이 연합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우리는 흔히 단상에 드골과 말로가 나란히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빈번히 서로 보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R.D.F.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즉 R.D.F.는 20%의 득표에 그쳤으며 원내 과반수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52, 53년에 드골은 R.D.F. 내에서의 그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말로 역시 똑같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재미있는 일종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드골은 꼴롱비-레-되-제글리츠의 자기 별장으로 은퇴하여 전쟁 회고록을 집필하고 사색하며 자연과 더불어 머뭙니다. 이미 줄잡아 62,3세가 된, 자연과 긴밀한 접촉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자연과의 강렬한 관계를 갖습니다. 말로도 어쨌든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 참여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골을 만난 후 드골 뒤에서의 참여 외에 그 어느 것도 그의 흥미를 끈 것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가장 비참여적인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것들이 『침묵의 목소리』, 『고야에 대한 시론』, 『세계 조각에 대한 방대한 시론』 등입니다. 말로는 저작과 예술에 대한 성찰에, 드골은 자연과 접촉하며 그의 회고록의 저작에, 즉 각자 서로 다른 분야에 몰두하며 침묵과 고독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 알제리 사건이 터졌으며 드골은 다시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말로를 그의 각료로 불렀습니다. 말로는 우선 공보부 장관이 되었으며 1959년 1월, 5공화국의 설립과 함께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직은 우리에게 장관직으로는 영광스럽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각료회의의 석상에서 말로는 항상 드골의 오른 편에 앉았으며 따라서 서열상 수상 다음의 제2인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수상은 맞은 편에 있었으며 드골장군의 곁에는 항상 앙드레 말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로를 그의 오른 편에 앉혔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로에게 맡긴 문화부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속의 프랑스 이미지 측면에서도 그는 또한 대단한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예산의 부서였으며 거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영향력의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단지 문화적 문제에만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드골이 앙드레 말로에게 보다 많은 정치적 외교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드릴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밝혀야 할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골이, 말로는 이 시기 중 프랑스의 문화적 새로움의 상징으로 더 적합하며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그의 이미지를 파괴해서 그를 자잘구레한 일에 빠뜨리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적은 힘을 부여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합니다.

실상, 여러 번 드골의 이름으로 프랑스를 대표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사람은 앙드레 말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0, 61, 62년은

우리의 옛 아프리카 식민지의 탈식민지화 시대였으며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독립시에 서너번 씩이나 계속 프랑스를 대표한 사람도 말로였습니다. 모나리자를 소개하기 위해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있던 미국에 가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도 말로였습니다. 그 후 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베르나르 앙토니오즈라는 증인에 의해 공개된 1965년의 일화가 공개됩니다. 말로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자살로 잃었습니다. 그는 끌라라 말로라는 첫째 부인과 헤어졌으며 조제프 끌로띠라는 두번째 부인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그녀는 기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죽음이 항상 그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제프 끌로띠로부터 두명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이는 모두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주위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말로에게서 우리는 그가 두 아이를 잃고 난후 점점더 죽음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고, 그격에 빨려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965년,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점점 더 신경질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장관 집무실에도 자주 가지 않았으며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만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법률상의 두번째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세번째 아내인 마들렌 말로였습니다. 그는 1965년 여름이 다 되어서 젊었을 때 그를 매혹시켰던 것의 흔적, 즉 아시아로 되돌아가기 위해 드골에게 몇 달 동안 프랑스를 떠날 수 있는 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인도로 되돌아가기를 원했으며 일본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드골은 기꺼이 승락을 했습니다. 그는 국무장관이었지만 완전히 사적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떠나기 며칠 전 베르나르 앙토니오즈라는 그의 중요한 협력자 중의 한 사람을 맞이합니다. 말로는 그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드리외 라 로셀의 책을 주었습니다. 드리외 라 로셀은 2차대전 중 유감스럽게도 대독 협력자였지만 말로가 아주 좋아하는 어쨌든 그가 높게 평가하는 작가였습니다. 드리외 라 로셀은 게다가 전쟁 후 자살하게 됩니다. 말로는 한 마디의 언급없이 그에게 드리외 라 로셀의 자살에 대한 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받은 이 사람은 여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했으며 말은 없었지만 이것이 말로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며 이 사람이 드골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골이 말로를 주은래와 모택동을 만나도록 중국으로 보낸 것은 이 일이 있는 후입니다. 1년 전, 즉 1964년 프랑스는 중국 대륙의 실체가 공산당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 이 결정은 전세

계로부터 호되게 비판받았으나 곧 세계는 우리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곧 문화혁명의 시기로 들어서게 됐고, 그 당시 프랑스와의 교류의 폭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로가 전쟁 전에 『정복자』나 『인간의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혁명에 매혹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골은 그로 하여금 모택동이나 주은래를 만나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말로는 여행 중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로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일화를 『반회고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큼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 가를 엿보게 해주는 수수께끼를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사는 드골 대신에 그가 모택동과 주은래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말로의 내부에서는 일종의 변신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꼈고 갑자기 역사가 문을 두드린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천 년의 중국을 보러 가는 것이 그가 중국에서의 공산주의를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보러 한 것은 천 년의 중국, 즉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혁명의 중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을 보러 가는 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반회고록』의 가장 주요한 곳의 하나인 한 장 전체를 쓰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말로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1968년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로는 항의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 그는 여러차례의 연설에서 이 점을 밝혔습니다 - 즉각적으로 드골의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측면에서보면 그것은 물질적 힘에 대한 인간 정신의 해방에 대한 호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측면에서는 드골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1969년 드골은 마지막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가를 물었습니다. 실상 형식적 물음은 상원의 개혁과 지방 분권화에 관한 것이었으나 핵심은 국민이 아직 드골을 신임하는 가를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드골은 침묵 속에 은퇴하여 꼴롱비-레-되-제글리르로 돌아갔습니다. 말로도 곧 그의 뒤를 따랐으며 그때부터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치적 참여가 드골에 대한 전적이며 절대적인 동의 때문인지 결코 그 자신을 위해서나, 드골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69년 12월, 즉 드골은 하야한 지 몇 달 후 실제로 우편, 관리, 조직을 위한 개인 비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말로만은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말로는 도착해서 전체 하루가 아닌 한 나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오전 경에 와서 저녁 5시 쯤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반 나절을 꼴롱비-레-되-제글리즈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 드골은 죽게 되며 그는 『쓰러지는 떡갈나무』란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은 드골과 말로가 그들의 삶 동안 함께 토론했던 중요한 문제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969년 겨울 대화 그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지켜왔던 증인들 모두가 그들은 이 책에 있는 모든 주제에 접근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화적 공간에 여러 계절을 집중시키고 모으는 예술가 혹은 화가로서의 말로는 드골과 가졌던 여러 논제들을 그를 꼴롱비-레-되-제글리즈의 겨울에 위치시켜 시간과 장소의 통일성을 주면서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되었던 것의 실제 사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와 같이 시적 직관을 가진 견자(見者)가 이 책 전 편에 걸쳐 드골장군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책은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중요한 책 중의 하나이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에서 보기도문 독특한 한 대화입니다.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과 금세기 위대한 작가 중의 하나인 사람 사이에 그렇게 심도깊은 대화는 처음입니다.

이 시기에 드골은 자신이 『희망의 회고록』이라 불렀던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 두 번째 역사적 시기인 1958년에서 1969년까지의 시기를 포괄하는 회고록이었습니다. 반면 『전쟁의 회고록』은 전쟁의 시기를 포괄합니다. 거기서 그는 말로의 초상화를 그려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초상화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쓴 것입니다. “내 오른 편에 그가 각료회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항상 말로와 있으며 있을 것이다. 내 곁에 멋진 친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드골이 그의 모든 저작 중에서 ‘멋진’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경우들 중의 하나입니다. 고귀한 숙명으로 타오르는 ‘내 곁에 멋진 친구가 있다는 것’이라는 표현은 저에게 제가 세속적인 생각, 다시 말해 가장 저급하고 가장 즉각적인 질문에 빠져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비할 데 없는 증인이 내게 갖게 해 준 생각은 나 자신을 굳건히 확립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토론에서 사안이 중대할 때 그의 번쩍거리는 판단이 나의

어둠을 일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로가 이 부분이 들어있는 『희망의 회고록』을 한 부 받았을 때 그는 이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골이 자신을 벗긴 친구로 묘사한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중의 하나인 만 베르베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봐. 너에게 이야기할 특별한 것이 있어. 글썽 드골장군이 나 자신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어.”

이 놀라움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 아무리 그들 관계가 막역했고 아무리 그들이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첫번째 만남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함께 전쟁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들 사이의 우정은 결코 친구에게 그가 당신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적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그들 사이에는 항상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샤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샤를 드골을 위한 앙드레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로는 그가 드골장군의 ‘벗긴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우정 사이에 있었던 특이한 점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 결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충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드골은 말로에게 그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순간도 말로를 친구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사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책은 1970년 10월, 말로의 사무실로 배달되었으며 드골은 1970년 11월에 죽습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만날 수 없었으며 말로는 드골이 죽는 순간에 바로 이 마지막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상장을 펴 특이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서로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만남은 196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골은 말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곧 죽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콜롱비-레-되-제글리즈에서의 만남 후에 말로는 『쓰러지는 떡갈나무』를 쓰게 됩니다. 덧붙이자면 샤를 드골에게 바쳐진 내용이 이 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회고록』에는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R.P.F. 시절 말로는 아주 많은 연설에서 드골장군을 언급했습니다. 그 후 『쓰러지는 떡갈나무』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도 한 두 편의 글이 더 나오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샤를 드골 정부의 개념에 대해 쓴 『고성소의 거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드골은 말로의 인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가 창조한 소설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택동도 그의 소설 속의 인물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말로와의 대화가 그가 『반회고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로가 모택동을 소설 속의 한 인물로 만들었으며, 또한 어떤 식으로든 드골 역시 그의 소설 속의 인물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골에서 말로 쪽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드골이 죽기 전 한 달 전에 출간된 따라서 거의 사후의 것들인, 글과 몇통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드골의 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편지들 중의 두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드골이 말로에게 부여했던 중요성과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로의 중요한 면, 즉 예술에 대한 물음에 대해 대화할 때 가져야했던 어려움에서 볼 때 꽤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58년 말로가 드골에게 예술에 관한 책 한 권을 보낸 후 드골이 말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신 덕분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죽었을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를 모르겠소. 정말 이것들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요.”우리는 여기서 매우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예술에 대한 개념과 자신 질문의 핵심, 다시 말해 예술 형태의 변형에 대한 생각에 대해 드골에게 가르쳐 주었는 가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골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문학을 제외한 예술 분야에는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골은 특히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회화에서 그가 흥미있어 했던 것은 역사적 재현이지 조형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축이 문명과 역사의 반영인 한에서 건축을 흥미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이 조형적이며 눈에 띄는 것이어서 그의 흥미를 끌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의 작품 전체, 아마 반이 역사와 별개인 인간 예술 행위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생각의 대 전체는 예술 행위가 인간이 죽음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에 있어 이 행위는 역사에서 나와 변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 상은 그것이 단지 이집트의 조각이라는 것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나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말로에 의하면 그것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인간이 신성과 갖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 때문에 이집트 상이 20세기 인간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드골이 공유했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말로가 위에서 처럼 드골에게 영향을 준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편지는 최소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그리고 최소한 드골이 모든 것 중에서 결국 삶의 의미에 대한 이 물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가 사려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말로를 정치권에 끌어드린 사람의 면모가 있습니다. 위계질서는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위에 있었던 사람은 드골이며 그가 무엇을 하던 그의 뒤를 따랐으며 그의 각료였던 사람이 말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 즉 예술적 질문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로였으며 말로의 말을, 스승의 말을 듣는 제자처럼 경청하는 사람은 공화국 대통령 드골장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리의 그랑 빨레에서 힌두 조각품 대전시회가 있었을 때 드골장군은 거기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그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간혹 질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질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로가 그에게 신성 형태나 그랑 빨레에 있던 부처의 재현 형태 각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다. 드골의 임기 중의 멕시코 예술 대전시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로는 드골에게 멕시코인에 있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골이 모르지만 흥미있어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매우 깊었던 관계라 말할 수 있으며 드골이 말로의 정치적 참여에 끼쳤던 중요성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정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적 측면에서도 말로가 드골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 때문에 25년 간 그들은 항상 서로를 필요로 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상호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상호 성장없는 그렇게 견고하고 깊은 관계를 실제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질문, 특히 『쓰러지는 떡갈나무』에서 제기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예술적 물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질문은 중요한 차원, 즉 삶의 의미에 대한 종교적 의문에 대하여 드골과 말로 사이에 대화가 얼마나 깊이있게 오고 갔는 지를 알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앙드레 말로는 언제나 불가지론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이 세계에 신성의 존재를, 그것이 물질적 형태이든 정신적 형태이든 알지 못했으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드골의 선택은 명백합니다. 드골은 가톨릭 교도로 태어나 가톨릭 교도로 죽습니다. 한편 1966년 그가 공산주의 러시아에 초청되었을 때, 그는 러시아 가톨릭 교회에서 영성체를 받으려 갈 것을 요청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공산주의 국가에 갔으나 그는 러시아 민중에게 그가 가톨릭이라는 전통적 신념에 매우 충실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상이한 두 종류의 정신 체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앙드레 말로의 저술 『쓰러지는 떡갈나무』의 대화를 통하여 위 두 사람이 질적으로 서로 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을 초월하는 가치에 몰입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즉 드골이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벽화 속의 귀부인’으로 표현한 프랑스를 위해 실천하고자 했던 희생, 또는 앙드레 말로가 그의 저서를 통해 문학을 위한 희생 또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역사에 주고자 했던 희생은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서로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들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말로의 경우 나중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에 적용된 변신의 개념이 인간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았고 아시아로부터 빌려온 ‘samsara’의 개념인 윤회 사상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반회고록 속에 있는 끌라삐끄와의 싱가포르에서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는데 언제나 필연적으로 윤회의 개념으로 귀착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고 ‘samsara’라는 개념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형식화할 수는 없었지만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면에 초월적 세계가 존재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쓰러지는 떡갈나무』에서 그들의 대화를 매우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상이성, 믿음과 그것의 실천에 대한 상이성, 즉 말로에게는 종교적 실천을 볼 수 없는 반면 드골에게는 매우 강한 전통적 실천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과 그 저편을 바라볼 때, 그들은 죽음이란 완전한 단절이 아니며 다만 다른 것으로의 이행이라고 느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 견해로는 그들의 우정이 그만큼 더 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험없이 드골장군은 여러 문인들에 매혹되었는데 사실 객관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말로와 같은 인물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같은 부르주아 출신이며, 프로방스 가톨릭의 전통적 색채가

강한 인물인 모리악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리라 예상됩니다. 드골이 말로에게 처럼 모리악에게도 강한 애정을 나타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드골과 모리악이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고 다만 계속 서로 교제할 필요성만 느꼈다고 합니다. 드골과 베르나노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합니다. 베르나노스는 1940년 6월 18일의 호소 이후 드골을 위해 일하지만 당시는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드골은 편지를 보내 그에게 아프리카로 자신을 보러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골은 그에게 라디오 브라자질의 뉴스 시간을 맡기려 합니다. 그러나 베르나노스는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드골 장군이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는 한 번 더 베르나노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 자리는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베르나노스는 프랑스로 돌아오는 것을 수락합니다. 베르나노스와 드골은 여러 번 만났지만 그들이 유사한 세계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이 그들을 서로 닮게 했는지, 아니면 베르나노스의 군주제도에 대한 신념이 그들을 서로 닮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드골은 왕당파는 아니었지만 출신 배경상 프랑스의 왕정주의 전통에 숭고한 이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골이 베르나노스에게 장관이 되어 주기를 부탁했을 때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에 대한 정치 활동을 그만 두려는 것처럼 튀니지에 정착하러 가게 됩니다.

골로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삐엥 제독 편에서 일했으나 후에는 드골장군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간에 대화도 오갔고 흥미로운 편지 교환도 있었으나 대지와 천체의 시인과 통제된 성품의 사를 드골 사이에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심각한 딜레마가 있었던지는 분명치 않고 오히려 모리악과 베르나노스의 경우에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선택은 이들이 아닌 앙드레 말로였습니다. 말로의 편에서 볼 때, 그가 사를 드골에 대해 애착을 느끼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하여 귀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질적인 이유는 말로가 37, 38년 스페인 내전의 종전 후, 공산주의자들이 찬양해 왔던 국제 프롤레타리아 체제가 한 시대의 주변적인 것으로 매우 중요하긴

하나, 유일한 현실은 국가적 현실에 토대를 두기를 요구한다는 점과 공산주의는 사기이며 소련은 이를 제국주의적 확장에 이용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는 스페인 국제 여단 부대에 있었을 때와 2차대전 기간 중 이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앙드레 말로는 민족적 이념에 집착하게 되며 그 시절 드골이라는 인물과의 만남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상 제가 너무 조급히 말하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저는 한국 청중 여러분에게 강연을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전혀 몰라 너무 두서없이 장황하게 많은 것을 다루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 저의 발표가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토 론 *

- 질문을 통해 보충 설명이나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참석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첫 질문이 어렵습니다. 자, 어서 용기있게 물로 뛰어 드십시오.

- 참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신의 우정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시다. 특히 그 위대한 우정 이야기를 당신이 신격화시켜 해석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시다. 당신은 양성 점유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로와 드골의 정신적 요소를 모두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철학박사이며 예술미학의 탁월한 전문가이며 조금은 정치가이기조차 합니다. 한편 드골 연구소의 전 대표위원이며 <아고라>의 제작자인 동시에 TV 제작자입니다. 따라서 당신을 변신의 신 프로테우스는 아니라도 적어도 스팅크스로 간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평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지만 실상 당신은 제가 읽고 싶은 소설의 작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독창적인 감각과 당신의 소설 『확인되지 않은 공주』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신비주의 취향으로 무척 당황해 하기도 합니다. 3년전에 저는 베니스에서 3일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베니스의 만남은 관광객들을 위해 변질되어버린 베니스의 외관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에 망쳐 버렸습니다. 베니스의 신비에 대해서는 당신의 소설없이도 너무도 무력한 문외한인 저를 위해 얼마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물론,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우선 당신께서 말씀해 주신 과찬의 이미지에 감사드립니다. 분명 약간의 정치적 경험과 앙드레 말로와의 만남, 샤를 드골에 대한 애착과 불교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된 아시아와의 접촉 등은, 겉으로 드러난 현실, 즉 이 방의 안이나 밖에서 보이는 것이 각 개인, 시대, 민족의 비밀스러운 지역들과 관련해 볼 때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최근 소설 『확인되지 않은 공주』를 다행히도 관광철이 아닌 때에 베니스에 가서 섬광같은 직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매년 11월 21일 경엔 '라 살뤼페'라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살뤼페'란 대운하의 오른쪽 입구에 위치한 동정녀의 여인상이며 또한 베니스를 내습한 페스트가 점차 물러가기 시작한 시기에 건축된 바실리카 성당을 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니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 도시입니다. 곤돌라가 도처에서 발견되며 이것이 미의 전형 혹은 잊을 수 없는 시적 경험의 예로 인식된다는 것은 20세기에 있어 중요한 상투적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종의 시적 광란을 통해서만 베니스인들처럼 오직 수면에서만 존재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곤돌라는 관광산업의 도구로서 현대의 속물주의, 배급주의를 반영하게 되어 가장 속물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우리가 위의 직관을 통해 베니스의 천년 역사에 접근할 때만 베니스의 시적 이미지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베니스 공화국은 실제 독립국가로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드리아 해안과 그리이스에 상당한 영토를 갖고 있었으며 알렉산드리아에 소식민지를 소유했고 시프러스섬과 크레트섬을 포함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식민지를 갖기 이전인 10, 11, 12세기에 이미 매우 중요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물질과 미의 힘의 화합 속에서 항상 만들어 지며 땅 속에 어떤 생명체가 살아 있어 이 도시로부터 발산해 나오는 그 웅장한 섬광을 천년 동안 경험한 후에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허구, 아니 정말 거짓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것이 정말 거짓인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쫓겨나게 된 베니스 공화국의 마지막 총독이 퇴위한 후, 비밀리 지하 땅 밑에 숨어 베니스의 메시지 즉 미의 메시지를 보전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저는 귀족계급의 한 여성을 창조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역사에 충실하고자 했던 음모자 부류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인 남성인물을 창조했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베니스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비밀의 현실적 힘을 받아들일 만큼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지 않고서는 역사의 비밀을 손상치 않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여성에게 거부당합니다. 즉 베니스라는 도시조차 그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속하는 지하세계가 겉으로는 죽어있는 가치를 계속 살려낸다는 생각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는 티벳 불교도들이 애호하는 한 전설로부터도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가르파'의 전설이라 하는데 '아가르파'는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지하의 비밀세계입니다. 세상에서는 종교가 사라지고 물질주의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이런 지하세계의 신비주의자들은 그들의 존재와 기도로 우리세계로 하여금 정신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베니스의 지하세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상이 저의 의도였습니다. 아 물론 이것은 서구의 역사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잡한 역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베니스의 신화는 여러분들께도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고의 본질, 우리가 그 현상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제가 그 책에서 발전시키고자 했던 사고의 핵심은 미와 그 미를 통한 인간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연결이 모든 문화와 문명에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이나 문화가 미, 즉 미의 형이상학적 의미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잘 망각하는 듯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쓰는 것이 잘되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 분명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모든 것, 저의 모든 소설적 시도는 현대인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과의 관계를 복음할 필요성을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 여러분 중엔 앙드레 말로의 작품을 읽으신 분이 많으십니까? 그의 작품을 읽은 분이 여러분 중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아마도 그의 작품을 읽지 않으셨나 보죠? - (웃음) - 자 ! ... 앙드레 말로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받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반회고록』의 일부를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매우 오래전 일입니다. 그 책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 당신은 말로의 역사에 대한 개념이 아시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의 소설에서 그 자신

이 역사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에서 역사의 도전에 직면한 인간에 대한 사고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 질문 (잘 들리지 않음)

- 드골장군은 군인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부친은 교수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오히려 지식인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 자신도 어린 시절 베르그송을 애독했고 한 평생 동안, 특히 꼴롱베 레 되 제글리즈에 은퇴해 있을 때 대단한 독서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 그의 본성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알사스와 로렌지방을 잃게 된 1870년 프랑스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하여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안의 조상이나 형제들 중에 군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하여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그는 지식인 계층에 속했음으로 한 평생 지적 세계에 마음을 열어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골과 여러 문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발표의 주제는 아니지만, 몇몇 작가들은 드골에 반대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후 58-69년 사이에 드골의 이미지는 어떤 작가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 볼 사르트르는 드골을 비판하고 싸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인텔리겐차라고 부르는 소위 제 5공화국 프랑스 지식계층은 대부분 반드골주의자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종합적 평가를 내려보면 위대한 문화가 중엔 드골주의자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베르나노스, 시몬 베이유. 그녀는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느 베이유는 부모들이 살고 있던 미국으로 가기 위해 그녀가 피신해 있던 마르세이유를 떠납니다. 유대인인 그녀는 프랑스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곧바로 런던으로 가서 그녀는 자유 프랑스의 의용군이 됩니다. 그 때 시몬느 베이유는 드골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르나노스, 끌로델 등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드골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위대한 문인들 중 몇 사람은 드골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편 58-69년의 시기에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지식인의 생활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반드골주의자였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의 소명은 권력에 대한 회의이고 그 시절의 드골은 작가들이 싫어하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의 지식인 세계는 민족 문제가 이데올로기 문제보다 더 중요해진 후기 막시즘 단계에 우리가 들어 섰음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막시즘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골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뭏든 우리는 이 두 시기의 구분이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질문의 후반부가 제겐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주장했어야 할 부분을 당신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상, 드골과 말로는 둘 다 전사였습니다. 저는 이를 약간 언급했지만 당신처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년 말로는 인도차이나에 싸움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떠나지는 않았으나 거기서 그 곳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36년엔 손에 직접 무기를 들었으며 40년엔 군대에 지원합니다. 말로는 물리적 전투를 좋아했는데 이 점은 국가의 명예를 위한 명분은 있었지만 직업 군인의 길을 택한 드골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둘 다 전사였고 동시에 지식인이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한 손엔 총을 다른 한 손엔 펜을 친다는 것은 실상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관한 암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만 힌두교 용어를 빌어 표현한다면 전사계급의 카스트와 문인계급의 카스트 사이에 합치점을 찾기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드골이 이 두 기능을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 말로의 사고 속에서 역사와 운명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었는지요?
- 운명이란 역사의 결과이겠지요. 저는 말로가 평생 동안 소위 무시간의 영역 안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와 접하면서 동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로는 시간의 초월, 즉 무시간에 매료됩니다. 이는 그의 예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술가들은 말로의 작품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에게도 실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예술가의 연대기적 차원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인간의 운명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예술을 역사 속에 위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말로는 스스로 역사를 수정하려 했기 때문에 이미 역사에 매료된 것입니다. 36년과 40년의 그의 참전도 역사를 수정하려는 목적에서였고 후에 드골 정부의 장관이 된 것도 명예 - 물론 이것은 언제나 즐거움을 주지만 말로에겐 지상에서 붉은 양탄자를 까는 일외에 다른 할 일이 있었습니다. -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역

사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여전히 무시간이 존재합니다. 예술에 관한 그의 마지막 작품들이 『초자연』, 『무시간』, 『비현실』로 제목이 붙여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이 저서들이 모든 역사를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 자,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소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아마도 말로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확실히 저는 말로의 천재성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 개인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드골의 어떤 면이 당신같은 철학가를 매혹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드골이란 인물에 접근하고 분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드골에 대한 저의 애착은 우선 말하자면 가족에 대한 애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안도 레지스탕스 시절 독일 점령군에 대항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프랑스를 구한 장군으로서의 드골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적 배경만이 유일한 설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선택들이 저의 가문의 취향에 맞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언제나 가문의 전통만을 따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결정주의를 넘어서 아마도 저는 조국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의 역사에 애착을 느낍니다. 물론 웅색하고 호전적인 국가주의자는 아니지만 프랑스에 태어난 이상 저는 조상들이 부여한 소중한 가치들을 믿습니다. 국제주의에도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뿌리에 먼저 확신을 갖는다면 다른 문화와의 만남도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망각한 채 국제주의자는 될 수 없으므로 우선 저는 자신의 나라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드골이 자신의 의무를 구현하고자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다른 정치적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국가들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가 프랑스에 전달하고자 했던 국가적 주체성의 메시지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해방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호전적 국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전시에는 주저없이 투쟁하였고 평화시에는 모든 정치권에 대항하였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분열로 인한 유럽에서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려 애썼습니다. 저의 드골에 대한 애착은 논리적이거나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역사와 전통에 충실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그분의 고매한 삶에 대한 존경심이기도 합니다. 방법론에 대한 당신의 질문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드골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에게 접근하였습니까? 그의 사고를 통해서인지...

- 글쎄요, 당신 질문엔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군요. 총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작가로서 존경합니다. 제일 상위에 놓을 수 있는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로서 존경합니다. 또한 저는 그를 정치가로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정치체제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 5공화국은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좋은 정치체제이며, 이는 저의 나라를 위하여 건전한 것입니다. 모든 정당과 계층이 번갈아서 언제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이미지에 따라 정치체제를 그릴 수 있고 좌파든 우파든 이 체제 덕분에 언젠가 프랑스를 통치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모든 정치집단에 집권 가능성을 주는 것은 한 공동체에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골과 말로의 대화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게 있어서 드골의 가장 흥미있는 면 중의 하나이면서 너무 점잖은 나머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편지, 메모, 단편”이란 제목으로 출판된 그의 서간집이 나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듯이 저도 그를 평생 동안 종교와 인간의 운명에 대해 의문을 품어온 인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인이면서 반면 어떤 경우에는 단순성과 부당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제겐 무척 흥미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동하는 데 있어 속고하지 못하고 느끼면서 어느 순간 앞서 나가야 했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생략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편 제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1990년 오늘의 프랑스인으로서 샤를 드골의 예를 따라 드골이 세운 것과 유사한 프랑스 정치를 다시 세울 수 있을 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고 또 그것을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드골장군의 뜻이 프랑스에서 더 잘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6월 18일 호소의 날 50주년, 모든 신문과 TV 방송은 드골에 대해 논평했는데 이는 드골 생존시 종종 반대 의견에 부딪치기도 했던 드골의 생각이 점점 더 프랑스인의 마음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프랑스는 자신의 주체성을 보존할 수 있고 통치기술로만 유지되는 사회나 다국적 사회처럼 용암 속에 형태없이 녹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더 큰 위협은 정치적 위협이라기 보다 우리 세계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제체제의 위협입니다. 따라서 한 민족의 전통에 충실함은 인간의 영혼이 기술적 지배에 대항하

는 굳건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게 드골의 모범적 예는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 저는 앙드레 말로가 식민지 해방에 대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 ! 마침내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군요. 그들 사이의 상호 영향, 특히 예술의 문제와 관련하여 말로가 드골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차원에서 드골과 말로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국무회의 보고서들이 모두 비밀문서로 처리되므로, 미래 역사가들 만이 옛 문서들을 뒤적이면서 정확히 국무회의에 말로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여 드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알제리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말로 자신이 말했듯이 그의 입장은 알제리 독립에 우호적이었고 이를 드골장군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실상 알제리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그에 비하면 아프리카 식민지 해방 문제는 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일의 진행이 순조로왔지만, 알제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드골장군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그 자신을 대신하여 말로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말로는 인도에 가서 네루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네루의 정책은 동서 양진영 모두와 어떤 동맹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라 이는 미국의 거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프랑스의 정책방향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드골은 말로를 보내 모택동을 만나게 했고 말로가 돌아와서 작성한 보고서는 드골의 주요 정책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드골은 그에게 한 번도 프랑스 외교 정책 결정의 책임을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 그것 참 흥미롭군요. 저는 드골이 식민지 해방에 우호적이라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앙드레 말로가 드골장군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여러분도 아다시피, 드골의 추진력은 현실적 사고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제리 전쟁에서 패배하리라는 생각과는 반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해방에 대해서는 그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1929년 그는 프랑스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신탁통치령인 레바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프랑스정부의 통제를 받았음으로 그는 그 당시 식민지 해방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1944년 그는 아프리카 브라자빌에서 브라자빌 회의라 불리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 또한 식민지 해방에 대해 예고합니다. 그는 군사적 패배 후 식민지에서 철수하는데 반대합니다. 1945년 그가 국정을 다시 맡게 되었을 때, 인도차이나에는 공산주의 해방을 위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프랑스 군대의 파병에 찬성했습니다. 동시에 트골레르 장관에게 내린 명령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 후 우리는 협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드골이 물러났음으로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는 디엔 비엔 푸에 패배했음으로 어떤 협상도 없었고 인도차이나의 일부는 공산주의자 손에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 미국인들이 왔으나 그들 역시 그 곳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극의 결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식민시대는 이미 끝났고 그와 관련하여 프랑스가 주도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의 경우는 그곳에 백만의 프랑스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가 알제리 혁명 덕분에 1958년 권자에 돌아왔을 때 알제리에는 백만의 프랑스인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곳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마다, 1960년 철책문제가 발생했고 알제리 중심가에선 그에 대한 반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61년엔 3명의 장군이 그에 대해 항명합니다. 따라서 그는 좀 더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을 원치 않았던 알제리 반란군 대표단 F.L.N을 상대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프랑스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신중한 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말로가 그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테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드골의 모든 글들을 통해 볼 때 식민시대는 이미 끝났음을 그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드골이 1880년에 국가원수였더라도 그가 식민정책을 원치 않았을 것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드골은 식민정책이 가능한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미 식민지 해방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했고 알제리와 인도차이나 사태는 극적인 드라마로 귀결되었습니다. 즉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식민지 해방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으나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 드골장군에 대한 관심은 유럽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더 고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 예, 올바른 지적입니다. 분명히 1962년 이후 줄곧, 드골장군은 유럽에 대해서 서유럽과 공산 동유럽의 분열을 없애고 대서양에서 우랄에 이르는 유럽이라는 명확한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전 지난 11월 비록 소련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중앙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도처에서, 폴란드, 동독, 헝거리 등에서 붕괴되자, 드골은 예언자로서 옳았다고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6월 18일 호소의 제 50주년 기념행사를 조직했을 때 우리는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 특히 국제신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럴드 트리분지의 1면엔 키신저의 미국외교에 대한 찬양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골의 이미지가 오늘날의 생생한 것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변혁으로 드골의 구상은 다시 표면에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 당신의 발표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양해해 주십시오. 프랑스인들에게 드골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분명 샤를 드골이 프랑스인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로 파리에 도착하여 여전히 처음 만나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샤를 드골은 프랑스인들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이미지인가요?

- 여러분은 우리를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프랑스 민족은 변화의 민족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1940년 드골이 그의 호소문을 발표할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장군들과 정치인들에게 그의 뜻에 동조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1944년 그가 프랑스에 상륙했을때 전 국민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1946년 그가 사임했을 때,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대중의 움직임이 있으리라 확신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4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 그는 R.P.F.를 창당했을 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47년 시 의회선거에서 대승하였고 얼마 후 4년 후인 51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의 저조한 득표율을 얻고 패배합니다. 57년인지 58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저의 최근 저서에서 기술했듯이 여론조사에서 드골은 1%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단 1%의 지지라니! 1958년 그는 제 5공화국 헌법을 제안하여 8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80%의 지지! 65년 1차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부분이 그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45%의 지지율을 얻고 제 2차투표에서는 58%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그칩니다. 이는 드골이라는 매력적인 인물에겐 그리 큰 지지율이 아니

었습니다. 그리고 69년 그는 47%의 지지율만 얻고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그 후 약 1년 뒤 그는 운명하는데 70년 11월 그의 장례식 때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그에 대한 애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프랑스인들은 드골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드골은 잊혀집니다. 더 이상 그의 책은 팔리지 않고 그에 대한 세미나, 회의 등은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갑자기 조금 전 여성 질의자께서 상기시켜 주신 대로 유럽의 변혁 이후 지난 6월 프랑스 전체는 선강의 축제에 놀라게 됩니다. 수십만 프랑스인이 운집했으며, 거의 모든 프랑스 주간지들이 드골과 관련된 제목을 표지로 달았고 우리는 이런 기대치 않은 성공에 놀랐습니다. 지난 6월엔 마치 프랑스인들은 모두 드골주의자가 된 듯 했습니다. 내년 11월, 그리고 100주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는 약간은 풍자적인 시각일까요? 근본적으로 드골의 정치체제는 천천히 비판받은 후에 이제 대부분 프랑스인에게 인정 받았습니다. 또 그의 방어체제는 심지어 정권을 계승한 그의 반대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독립의 원칙은, 그것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드골장군이 프랑스에게 가져다 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프랑스인에게 알맞은 기질은 일종의 변화입니다. 분명 금년처럼 내년에도 드골장군에 대한 TV방송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실증이 나서 1-2년 후엔 입을 다물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1981년 사건은 드골의 유산이 견고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81년 드골장군의 정적이 국가수반에 올라 드골의 공적이 파괴되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를 대답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지적한 다양성 속에서 드골이 우리에게 남겨 준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제 이 토론회를 끝맺도록 부탁드립니다.